

“다시 한번 게임 세상으로”... 신작·체험 등 ‘역대급 스케일’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개막
넥슨·넷마블·위메이드·카캠 등
대표 게임사들 신작 대거 출격

역대급 규모 부스, 시연기기 등
이용자 체험·볼거리에 주안점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지스타 2022’이 부산 종합전시관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지스타2022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을 맡아 오는 20일까지 4일 간 개최한다.

개막식에는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비롯해 이정현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 게임사 대표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스타는 코로나 19이후 3년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조직위는 이번 지스타2022에 약 2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지스타 2022 공식 슬로건을 ‘다시 한번 게임의 세상으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부스 공간이 준비됐다. BTC관(일반 관람객 대상) 1957부스, BTB관(기업 대상) 564부스로 총 2521부스로 꾸며진다. 조직위에 따르면 야외 전시장과 부대행사 공간을 반영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3208부스를 추월할 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가 개막한 1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스1

있다는 분석이다.

지스타2022에 참석한 게임사들은 각 사만의 방식을 통해 부스를 꾸려 이용객들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콘솔로의 확장이 눈에 띈다. 또 이용자들의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3년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만큼 기대하고 참가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게임을 여유롭게 체험해 봤으면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지스타2022의 메인스폰서인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는 BTC 200부스, BTB 30부스 규모의 전시 참가를 확정했다. 위메이드는 2012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 위메이드는 이번 지스타에 BTC관, BTB관에 모두 참가해 신작 2종과 블록체인 생태계 ‘위믹스’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위메이드플레

이와 위메이그 커넥트도 B2B공동관으로 참가해 각사 전략을 발표한다.

넥슨은 이번 지스타 슬로건을 ‘귀환’으로 정하면서 신작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4년만에 참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체험과 시연에 중점을 뒀다. 또 콘솔 플랫폼을 시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증폭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넥슨은 BTC관 단일 최대 규모인 300부스를 운영하며 총 9종에 달하는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연 기기는 560여대나 준비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루트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는 콘솔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5와 PC로 체험할 수 있다. 넥슨이 지스타에서 콘솔 플랫폼을 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카드(대표 부회장

정태영)와 함께 서비스하는 ‘넥슨 현대카드’에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디자인의 카드 플레이트를 지스타 현장에서 최초 공개했다.

넷마블은 100부스 규모로 참가해 내년 출시예정인 ‘나혼자만 레벨업:ARISE’를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아스달 연대기, 파라곤: 디오버프라이프, 하이프스쿼드 등 4종이다. 해당 게임들은 넷마블이 꾸린 160여대의 시연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메인스폰서였던 카카오게임즈는 3종의 신작을 선보인다. 카카오게임즈 또한 대규모 시연석을 마련해 직접 이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또한 향상된 게임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LG전자와 제휴를 맺고 부스에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

커’를 설치했다.

6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하는 크래프톤은 내달 2일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둔 서바이벌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직접 플레이하고 예약구매까지 할 수 있게 구성했다.

네오위즈는 PC 콘솔용 게임 P의 거짓을 선보였다. P의 거짓은 네오위즈가 자체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스컴 2022에서 한국 게임 최초로 3관왕의 영예를 얻은 게임으로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게임 중 하나다. 네오위즈는 P의 거짓을 단독 출품하며 전시 규모는 100부스, PC 시연대는 총 50대를 설치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모씨(17살)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관람이다. 수능 때문에 학교에 안가서 지스타를 왔다. 평소 게임을 즐겨하는 편이고 굿즈도 좋아한다.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신작을 선보인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다. 지난해보다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넓은 것 같아서 이용해 보기 여유로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변한 점이 있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보다 시연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아졌고 규모가 더 커진 것 같다.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부스도 사람도 2배 이상 커졌다. 기대하고 온 이용자들이 만족시키고 싶다는 목표로 각사 모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20일까지 안전하게 모든 이용자들이 많은 체험과 관람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역대 최대 전시관... 콘텐츠 풍성

고성능 SSD 라인업 선보여
게임 플레이존서 경험 가능
‘갤 Z 시리즈’ 경품 이벤트도

삼성전자가 지스타2022에 모인 게이머들을 찾아간다.

삼성전자는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인 357㎡ 규모 전시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게이밍 제품들과 함께 콘텐츠를 마련했다.

고성능 SSD가 대표 제품이다. 990 PRO와 990 PRO with Heatsink, T7 Shield 등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고성능 SSD 라인업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게임 플레이 존(Game Play zone) ▲엔터테인먼트 존(Entertainment zone) ▲클래스&이벤트 존(Class & Event zone) 등 다양한 체험존을 마련하고 게이머들이 현장에서 제품 설치부터 게임플레이까지 직접 삼성전자 SSD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게임 플레이 존’에서는 관람객들이 11월 8일 출시된 ‘세가’의 ‘소닉 프론티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Square Enix’의 ‘Forspoken’ 등 기대작 게임을 990 PRO와 990 PRO with Heatsink



‘지스타 2022’ 삼성전자 부스. /부산=최빛나 기자

로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 Biz팁 이규영 상무는 “보다 실감나는 고화질, 고용량 그래픽 게임이 늘어나면서 게이밍에 특화된 스토리지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990 PRO, T7 Shield 등 탁월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최신 SSD 제품군을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디세이 OLED G8도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다.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OLED 패널을 탑재했으며, 21대9 비율에

34형 커브드 모니터다. QHD 해상도를 지원하며, 175Hz 고주사율에 0.1ms 반응속도를 지원한다. 지난 6월 출시한 세계 최초 240Hz 4K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8’도 함께 전시한다.

갤럭시 스토어 부스도 별도로 마련했다.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를 통해 최신 인기 게임을 체험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쿠키런과 원신, 문명 등 인기 게임과 협업한 스페셜 에디션도 함께 소개한다. 다양한 게임 할인 쿠폰과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갤럭시 Z시리즈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김재용 기자 iuk@

위메이드, MMORPG 신작 2종 최초 공개

나이트크로우·레전드 오브 이미르

위메이드가 신작게임 나이트크로우와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17일 지스타 현장에서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BTC 전시관에서 진행된 오픈토크를 통해 매드엔진의 손면석 대표(PD)와 위메이드엑스알의 석훈 PD가 직접 게임을 소개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매드엔진의 ‘나이트 크로우’는 내년 4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MMORPG다. 나이트크로우는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해 실사풍 그래픽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이목을 끌었다.

매드엔진은 MMORPG 장르의 거장 손면석 대표(PD)와 이정욱 대표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개발사다. 특히 이번 오픈토크에서는 지형의 극단적 높낮이를 활용한 ‘격전지 필드’ 영상도 공개하며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손면석 매드엔진 대표(PD)는 현장 오픈토크에서 “나이트크로우는 1200년대 유럽을 재구성한 세계 속에서 세상 뒤편에 존재하는 밤까마귀 길드 ‘나이트 크로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며,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17일 손면석 매드엔진 대표가 지스타2022 위메이드 부스에서 나이트크로우의 배경 등 게임 소개하고 있다. /부산=최빛나 기자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개된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북유럽 신화 최초 생명체이자 거인 이미르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위메이드엑스알에서 개발 중인 대작 MMORPG다. 지난 1월 언리얼엔진5를 활용한 압도적 그래픽의 테크 데모 영상을 공개해 현장에 참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페이스 캡처나 모션 캡처를 활용한 리얼한 캐릭터 묘사, 움직임 표현을 더해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석훈 위메이드엑스알 PD는 “익숙한 북유럽 신화와 미르 IP가 가진 대서사시가 만나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세계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부산=최빛나 기자